

한마음 봉사단 불우이웃돕기 성금전달

생활보호대상자 아닌 영세민 중 3명 선정, 각 10만원 지급

경희의료원내의 봉사 단체인 한마음 봉사단(단장 김진우 내과교수)은 추석을 맞이하여 회기동내에 있는 불우이웃 3명을 선정, 1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지난 11일 회기동 사무소에서 열렸던 성금전달식에는 김창환(한방침구 1과 한마음 봉사단 사회봉사부장)과 김희경(회기동 동사무소장) 씨 등이 참석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영세민들 중 생활이 많이 어려운 사람들을 우선대상으로 삼았다.

약 8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한마음 봉사단은 앞으로 그동안 실시해 왔던 무료진료 불우시설 방문 등의 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성금 전달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우리주위에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지 못한 이웃이 많다. 최소한의 생계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이웃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수혜대상으로 선정된 세 사람의 가정환경은 다음과 같다.

▼이유광(71세·여)씨는 아들 한 명과 손자두명이 있으나 아들이 사



▲한마음 봉사단 김진우 내과교수가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업설해 후 많은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여 장기 출타중이라 부양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관계로 할머니 혼자 손자들을 돌보며 주위의 도움으로 생활하고 있다. ▼정휴갑(50세·남)씨는 월남 파병때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어 부인이 부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여가고 있으나 부인의 건강 또한 좋지못하여 고혈압 등의 지병으로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따라서 1남 1녀의 자식들을 돌보

기 어려운 상태이다. ▼장유덕(32세·남)씨는 부인과 외동딸이 있으나 출생 1개월의 딸이 심장이상으로 심장병의 진단을 받아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일 정 직업 없이 제작된 싱크대 등을 가정에서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일당 2만원~3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최현일기자>

동대문구 시민알뜰장 개장

지난8일 장안1동을 시작으로 과 소비추방과 건전한 소비생활정착을 위한 시민알뜰장이 개장되었다. 우리농산물 직거래하고, 생활주변의 자원 재활용품을 매매, 교환하는 이번 알뜰장은 이달말 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현재 동대문구 23개동 전역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알뜰장은 각종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환경상품 전시 및 판매뿐만 아니라 전통음식도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개장 첫날인 8일에는 중추절을 맞아 우리농산물 직거래가 큰 호황을 이루었다. 문의는 거주지 동사무소로 하면 된다.

한편, 알뜰장 수익금은 전액 불우이웃 돕기성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초등학교 재활용교육

동대문구에서는 지난 9월1일부터 한달간 홍릉초등학교 등 관내 9개 학교 4.5학년 2천8백여명을 대상으로 재활용관련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친화력 및 자원의 절약과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실시하는 이 교육은 각 학교별 일정에 맞춰 구청의 주관부서장이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쓰레기와 환경과의 관계, 쓰레기 줄이는 방법, 재활용의 가치와 환경보호, 재활용의 바른 실천 및 올바른 분리배출, 현재 재활용추진실태 등이며, 앞으로 초, 중, 고등학교 전학년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원 부서 비용절감운동

경희의료원 총무과에서는 지난 7월초부터 시작한 비용절감운동을 요일별로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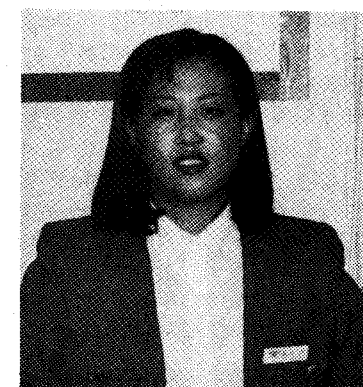
이번 비용절감운동은 9월 12일 현재 75만 5천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매일 직원 식당 앞에 당일 및 익일의 실천과제를 게시하여 직원에게 홍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요일별 추진사항으로는 월요일 물자절약, 화요일 에너지 절약, 수요일 수돗물 절약, 목요일 사무용품 절약, 금요일 금전절약, 토요일 환경개선, 일요일 시간절약의 날로 각각 정해져 지켜지고 있다.

각 부서별로 월말에 증정비용절감계획 및 소비절약계획 이행현황

'97가을맞이 국악대공연 성황

'97가을맞이국악대공연이 동대문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지난 9일 오후3시부터 약 1시간 만에 걸쳐 개최되었다. 약 800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통무용인 화관무와 경기민요, 부채춤, 판소리, 남도민요를 비롯하여 현대적감각으로 재조명한 창작무용 등이 공연되어 국악을 직접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주민들도 국악의 흥취를 접할 수 있었다.

우리마을 지킴이



역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었던 일은요?
가끔씩 소지품이나 지갑을 분실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실물을 습득하신 분들 중에 그것을 챙기지 않고 역무실에 가져

가을에 생각하는 것

해마다 가을은 참 갑자기 온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더위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노라면 어느새 가을이 곁에 와 있곤 한다. 가을은 빛으로 오고, 향기로 오고, 아련한 감촉으로도 온다. 올해도 그렇게 가을이 온 것 같다.

스무살 가을에, 나는 고등학생 티를 벗지 못한 의예과 1학년 학생이었다. 외모뿐 아니라 생각이나 가치관에 있어서도 학교 밖으로 나오기만 했지 마음은 발달지체를 겪고 있었던 것 같다. 무언가 해야 되는데 허송세월하고 있는 것 같은 막연한 느낌에 시달렸고, 맞지 않는 옷을 입시로 입고 있는 듯한 거북함이 늘 나를 따라다녔다. 동기들의 문화에는 잘 적응하기 힘들었다. S대에 낙방하고 후기로 입학한 상태에서, 당시 몇몇 같은 과 동기들이 진짜 실행에 옮긴 대로, 재수를 할까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무언가 그런 나의 양가감정을 잠재워 줄 외부의 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같다. 언젠가 내가 바라던 의사라는 존재로 태어나겠지 하는 기대는 너무 막연하고 또 멀었다. 그러던 중, 과대표를 통해 한가지 제안이 들어왔다. 정신과의 모 교수님이 취를 가지고 실험을 하시는데 실험을 보조해줄 지원자 한 명을 찾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끌려듯 거기에 지원했다. 실험은 취들에게 전기충격을 주고, 그에 따른 기억력의 손상 및 복구의 정도를 어둡상자를 이용해 검증하는 것이었다. 나의 역할은, 실험을 위해 들어온 취들을 관리하고 몸무게별로 나누는 일에서부터 가느다란 전극을 통해 취에게 전기충격을 주어 경련을 일으키는 일, 취를 기억력 테스트용 어둡상자에 넣어 빛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는 일, 기억력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약물들을 취의 복강에 주사하는 일 등이었다. 실험은 매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휴일이거나 시험기간에도 쉴 수가 없었다. 작은 취들을 들여오면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고, 날씨가 선선하면 취들이 감기에 걸려서 기침을 해대기도 했다. 그해 가을을, 그 교수님과 나는 천여마리의 취들과 함께 보냈다. 실험은 가을을 넘기고,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2월까지 계속되었다. 강의실과 실험실을 오가면서, 어느덧 나의 그 '거북함'은 차츰 잡자가 시작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비로소, 기정사실로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 같다. 실험이 끝났고 거의 동시에 나는 예과 2학년이 되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나, 그때의 인연이었는지 몰라도, 나는 정신과 전공의가 되었다. 가을이 오면 그 따스롭고도 서늘한 느낌과 함께, 차가 났고 있던 어느 교수님의 연구실도 생각나고, 인사동 골목 한귀퉁이를 비추던 한가닥 바랜 햇빛도 생각나고, 때로는 중앙도서관 앞을 울창히 메운 단풍잎이나, 남도의 어느곳이 생각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게 더욱 잊혀지지 않는 것은, 실험실 창문을 통해 보았던 눈부신 푸른 하늘과, 바람과, 흰 취들의 붉은 눈망울과, 그들에게서 나뉘는 냄새, 그런 것들이다. 내 젊은 날의, 첫 시간이다.

유 희 정
(신경정신과 전공의)

모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동대문구에서는 9월 한달동안 관내 모자가정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모자가정에서의 여성의 현실적 사회참여 제한 및 자녀의 가사활동 이중 부담 등으로 대부분의 모자가정이 최저생활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근본적인 생활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모자가정의 조사범위는 모와 18세미만의 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방문조사를 통해

과전하는 형식으로 의료협정이 체결되었으며, 전문의 1명과 수련의 1명을 파견할 계획이다. 경희의료원측은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과 한약이나, 위생재료등을 제공하게 된다.

모의능력과 개성에 따라 사회활동을 추구할 수 있는 기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의 학비나 양육비를 지원하는 등 모자가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동대문구에선 이달 말까지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21일 모자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부터 모자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는 동대문구 가정복지과 (920-4490)로 하면 된다.

제4회 시민 독서 감상문

'제4회 시민 독서 감상문' 모집을 용인시립도서관 주최로 이달 30일까지 마감한다.

도서 선택은 자유이며 200자 원고지 10매 내의 분량의 감상문을 용인시립도서관 관리계로 제출하면 된다. 발표는 10월 20일 개별통지하며 시상은 11월 중 용인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한다.

문의는 0335)30-1151과 35-4627이다.

선관위 자원봉사자 모집

용인시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는 9월부터 98년 5월까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자원봉사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및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및 공명선거 홍보업무 등을 보조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대상은 용인시내 거주자에 한하며 모집인원은 사무보조 1명, 계도 홍보요원 20명 정도이다.

용인시 노래말 현상공모

용인시는 10월 20일까지 '용인시의 노래' 노래말을 현상공모한다. 4절 형식으로 21세기를 향해 발전하는 용인시의 기상을 서사적으로 표현하면 된다.

발표는 11월 10일경 개별통지하며 보낼 곳은 우편번호 449-020.

경기도 용인시 김광장동 289 용인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이다. 응모작은 반환이 안되며 입선작의 제반권리는 용인시에 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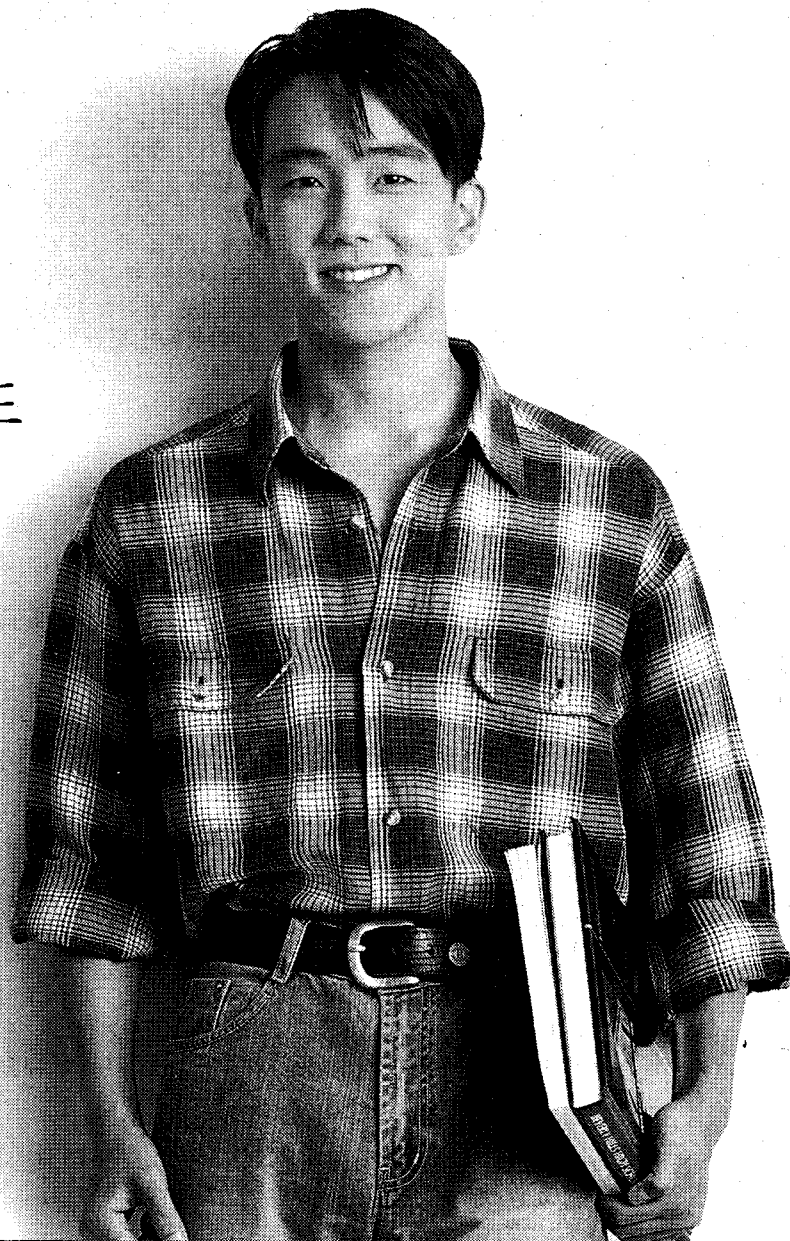
기타 자세한 문의는 0335)30-1224, 5이다.

정보통신이 빠른 나라 -스피드 코리아

SK Telecom

처음 시작한 날도, 한달에 한번 그날도
저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처음 가입할 때의 가입보증금 부담이나
매달 한번씩 날아오는 요금청구서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이동전화!
하지만 이제 스피드011은 가입보증금 부담도 없고
기본요금도 1만원이면 되니까 걱정없어요.



스피드011 - 이제 부담없이 가입하고
부담없이 쓰십시오

스피드011은 가입보증금 20만원이 필요없습니다

가입보증금 20만원을 보증보험료 2만원으로 대신해 드립니다.
SK텔레콤 전국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스피드011 신규가입시
모든 절차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및 자동차부 신청을 통장에 지참해 주십시오.
-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증보험 이용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고객은 제외됩니다.
- 보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요금 자동납부를 원천으로 합니다.
- 보험대신 종전대로 2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셔도 됩니다.

기본요금 1만원의 SAVE요금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본료를 기존 일반요금의 절반 수준인 월 1만원으로 대폭 인하하고,
요금 할인시 최고 50%까지 할인되는 SAVE요금제를 신설하여
하루 2~3통화 정도의 소량 이용 고객의 요금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한 통화는 65초 기준임)

- 기본요금: 10,000원
- 통화요금: 10초당 42원/21원(비할인/할인시간)
- 요금할인 적용시간: 평일·토요일(21시~익일08시), 공휴일(전일)

●고객센터(이용시간 09:00~22:00) : 서울(02-6808-0110) · 부산(051-6181-0110) · 대구(053-4242-0110)
· 광주(062-5104-0110) · 대전(042-2286-0110) · 서울(02-2286-0110) · 서울(02-2286-0110)
· 강원(0331-456-0110) · 제주(064-433-0110)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ktelecom.com
●NETSCO 홈페이지: http://www.netgo.com ●PC통신 (80)한글 천리안, 나무위, 유니텔 GO SKTEL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스피드011 -
만족은 크고 부담은 대폭 줄였습니다